

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

외교부·국방부 정책방향 보고
“군사훈련, 전쟁대비 실효적 연습
北 인권문제, 단순 인권수호 아닌
‘도발 억제’ 강력한 심리적 요인”
“中 출입국 문제, 국민보호 위한 것
상황따라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외교가 경제에 방점을 찍는 기조인 만큼 올해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정책을 해 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의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란 슬로건 아래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대는 나라는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가 일치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군사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5월 11일 출범해 여러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가 많았다”며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외교행사, 외교적 정책을 해 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해외 공

관을 우리 경제외교, 수출 거점 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외교부 해외 공간은 외교부 지부라기보다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 일하기 쉽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 내 공관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보건이 무너지고, 경제통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징용 문제와 관계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피해당사자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여러 안보 위협, 안보 위기, 경제 공급망 교란,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접경지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발적·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방부 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게 압도적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평화 가능성이 있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억대 연봉자도 4%대 ‘특례보증자리론’

금융위, 최대 5억… 30일부터 신청
주택가격 9억 이하, LTV 70% 적용

오는 30일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증자리론’이 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증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특례보증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증자리론, 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가능하다. 주택가격

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자금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용도 ▲기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보전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80%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p),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

하며,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단 LTV와 DTI 규제지역 차감은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충족 시 차감이 배제된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p 반영돼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특례보증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스피·코스닥·환율 상승마감

코스피가 전 거래일(2351.31)보다 8.22포인트(0.35%) 상승한 2359.53에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6.05)보다 13.72포인트(1.97%) 오른 709.77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44.7원)보다 1.5원 뚫 1246.2원에 마감했다.

/뉴스

SK하이닉스, 10억弗 규모 SLB 발행

2026년 온실가스 57%감축 목표
투자자 관심에 5억弗서 규모 확대

SK하이닉스가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에 성공하며 여전한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SLB를 10억달러 규모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SLB는 ESG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금리 등이 조정되는 채권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직간접 5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SLB 채권 발행량 목표를 5억달러로 설정했다. 투자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발행 규모를 2배 확대한 것.

글로벌 메모리 업체 중에서 SLB를 발행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채권 발행에 앞서 ESG 목표에 대한 글로벌 인증기관 검증을 통해 도전적인 수준이고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실적을 ‘지속가능성보고 시스템(SRS)’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6년 이후 최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해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다운턴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 데 대해 회사는 무척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채권에 담긴 당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 대해 신뢰를 보내준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韓 추가구입 선제적 논의, 국산백신 활용 고려해야”

>> 1면 ‘코로나 백신값’서 계속

모더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50억달러(약 6조 23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매출로만 184억달러(약 23조원)를 벌어들였다.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이 날 모더나 방셀 CEO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가격 인상 계획을 중

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할 전망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가격이 인상되면 국내 수입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전량 구매해 무료 접종하는 현재 체계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7900만명의 백신 구입에 3조8067억원을 사용했다. 1회분 당 4만8000원 수준

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데믹으로 백신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백신 가격을 적정 시장 가치에 맞게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 정부도 아직 구입해 놓은 물량이 물론 남아 있겠지만 추가 구입을 위한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산 백신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